

백신평방문, 착한임대인 표창... 권칠승, 호남서 광폭행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석 앞두고 2일간 지역 방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등 찾아
‘AI 스타트업캠프’ 개소식 참석
“AI 창업투자 핵심 되도록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영광군에 있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호남지역에서 광폭 행보를 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전남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남 e-모빌리티·백신산업 특구 방문, 호남지역 착한임대인 표창 수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특구 방문 등 이틀간 발걸음을 이어가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광주전남 방문 이틀째인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지역 임대인 3명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직접 수여했다.

앞서 중기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을 위해 월세를 내린 전국의 임대인 55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30명은 중기부 장관 표

창자다. 나머지 표창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각 지방중기청별로 추석 전에 해당 임대인들에게 수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한 임대인의 경우 본인 건물에 담보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상생을 위해 4개 점포에 대해 15개월간 46% 수준의 임대료를 깎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약 10만4000명에 달하는 건물주들이 임차인 18만1000명에게 총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또 수여식을 마친 후엔 광주 광산구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친환경 채소 재배 스마트팜 예정지를 찾았다.

이날 방문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국비 18억5000만원 등 총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다. 이곳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7팀, 약 14명은 로메인상추 등 친환경 업체류를 생산, 판매해 자립을 도모하게 된다.

이날 오후 권 장관의 발걸음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 만든 ‘광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캠프’ 개소식으로 이어졌다.

개소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갑석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권 장관은 “개소식 장소는 1994년 전남공업기술원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5년간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 곳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내 인공지능 분야 창업투자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권 장관은 호남지역 행보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 무인 저속특장차 특구를 찾아 실증 추진현황

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12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수목적용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최근엔 무인의 특장차 전용 자율주행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단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원격제어가 가능한 양방향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특장차의 안전한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끝내기도 했다.

권 장관은 전날엔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했다.

e-모빌리티 특구에선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등의 운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성 시험·검증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진행한다.

권 장관은 또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백신산업특구를 방문해 특구사업 주관 기관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와 참여기업 중 하나인 바이오FD&C를 차례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청년 채용시 월 190만원 6개월간 지원

메인비즈協 ‘미래 청년인재 육성사업’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가 청년일자리 종합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유망기업들이 새로 채용한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미래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메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이 청년을 새로 채용할 경우 단순 노

무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기본급180만원+간접노무비1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협회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기업이 새로 채용하는 청년 1000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업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채용계획서를 제출, 협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지원한다. 메인비즈협회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제조中企 10곳 중 9곳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중기중앙회, 312개 기업대상 조사 32% ‘중소제조업 전용요금제’ 원해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을 가장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내놓은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88.8%였다.

‘부담된다’는 답변은 ‘매우 부담’이 20.8%, ‘다소 부담’이 36.2%, ‘약간 부담’이 31.7%로 각각 나뉘었다. 이외에 ‘거의 부담되지 않음’은 10.9%, ‘전혀 부담되지 않음’은 0.3%였다.

이런 가운데 제조 중소기업들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요금제 신설’이 32.1%로 가장 높았다.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23.7%) ▲6·11월 여름·겨울철요금→봄·가을철 요금 적용(19.2%)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다.

정부가 연료비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

한 조치에 대해선 67% 기업이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업 경험이 있는 기업(126개사)들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절감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20.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9.9%에 그쳤다.

또 정부의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미참여 업체(216개사)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랐거나 늦게 알아서(53.7%)’,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0.6%)’ 등이 주요 이유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원사업 규모와 홍보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SW개발인재 공동채용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벤처기업협회 SW개발 인재양성 앞장 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벤처기업협회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뽑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Digital Training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SW개발 분야 인재양성 및 채용지원에 앞장서겠다고 14일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형 인재 양성 확대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벤처협회는 유망 벤처기업과 구직자 간의 채용연계를 위해 지난 13일 ‘SW개발인재 공동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비전선포식을 갖고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도 본격 출범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보일러, 카본매트 신제품 출시

귀뚜라미보일러가 카본매트 신제품을 출시하고 온수매트에서 카본매트로 겨울철 난방매트 세대교체에 나선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보일러 업계 최초로 신개념 난방매트인 카본매트를 출시한 데 이어, 카본열선과 편의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2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귀뚜라미 2022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방탄복에 사용하는 아라미드 첨단 섬유에 2중 특수 피복을 입혀 완성한 ‘아라미드 카본열선’을 적용했다.

매트를 반복적으로 접었다 펴도 열



귀뚜라미가 새로 선보인 ‘2022년형 3세대 카본매트 온돌’과 모델 지진희.

선이 끊길 우려가 없고, 화재로부터 자유롭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백화점서 불법촬영 혐의’ 검찰 수사관...구속기소
▲ 당국 “화이자 맞은 초등생, 특이반응 없어...체크리스트 확인 미흡” /사진 뉴시스

▲ ‘3년미만 변제 아시나요’...법원, 청년채무자 상담 강화
▲ 확진자 추적했더니 룸10개 비밀 호스트바...38명 적발



▲ 1차 접종률 美·日 앞질러...당국 “韓, 접종 가장 빨리 진행한 국가” /사진 뉴시스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에 8개 부처 차관 참여...정책 전문 논의